

"지구 사막화 위험 알린다"...中 내몽고서 '지구살리기 그린코어전'

(서울=뉴스1) 김아미 기자 | 2017-08-31 09:00 송고



아그네스 데인의 대지 프로젝트 '나무산-살아있는 타임 캡슐', 1992-2013© News1

지구 사막화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세계 각국 작가들이 중국 내몽고에서 뭉친다. '제13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'(UNCCD) 총회가 개최되는 내몽고 어월뒤쓰(鄂爾多斯·Ordos) 국제컨벤션전시센터에서 9월7~17일 국제기획전 '지구살리기 그린코어전'이 열린다.

지난 10여 년간 사막에 나무심기 활동을 해 온 사단법인 미래숲(대표 권병현)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,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며,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이 주관하는 이 전시에는 전세계 16개국의 작가 56명이 참여한다. 한국에서는 고예정, 김남표, 김명우, 김민규, 김석훈, 민경갑, 박세운, 박세희, 오용길, 이명호, 이세현, 이이남 작가 등 12명이 참여한다.

김승민 큐레이터가 기획한 이번 전시에서는 총 89개의 작품을 선보인다. 회화, 사진, 카툰, 캐리커처 등 82 과 환경 관련 기관의 사막화 방지 활동을 담은 7 개의 영상이 전시된다. 주최 측에 따르면 각국 작가들은 참여비를 받지 않고 전시에 지원을 했다.

이번 전시는 6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황사, 가뭄, 토지황폐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부터, 지역 사회 붕괴 등 사회적 이슈 그리고 이에 맞선 노력들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자연친화적 삶을 작가적 시선으로 보여준다.

특히 환경예술가 아그네스 데인은 대지 프로젝트 '나무산-살아있는 타임 캡슐' 등을 선보인다.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'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'에서 핀란드 정부의 정식의뢰를 받아 전세계 1만1000명의 자원 봉사자들과 1만1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만든 인공 나무숲이다. 피라미드의 기하학적인 구조에 기반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실현한다는 상징적 구조로, 향후 400년 간 핀란드 법에 의해 생태 타임캡슐의 형태로 보호될 예정이다.